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제772호**







Offer valid for March/April 2019

NEW for 2019 NEW for 2019 Buy more ... get more!

Buy \$325 & get 1 FREE CASE of Drumstick Rolo valued at \$4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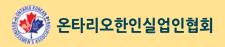
Buy \$450 & get 1 FREE CASE of both Drumstick Rolo AND Drumstick Mocha Cookie Crunch valued at \$87.12

Buy \$550 & get 1 FREE CASE

of each of Drumstick Rolo &
Drumstick Mocha Cookie
Crunch AND Maynard's Fuzzy
Peach and Swedish Berry value
at \$113.52



MAYNARDS AND SWEEDISH BERRIES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MONDELÉZ INTERNATIONAL GROUP, USED UNDER LICENSE BY: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2019 NESTLÉ. ALL OTHER TRADEMARKS ARE OWNED BY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AND USED UNDER LICENCE. ©2019 NESTLÉ.



■ OKBA 회 장: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이사장 이두승/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감사 3인

■ 분과위원회: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Scarb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홍기(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Huronia 회장 진재원(705)487-2005 Kingston 회장 이강정(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705)652-6323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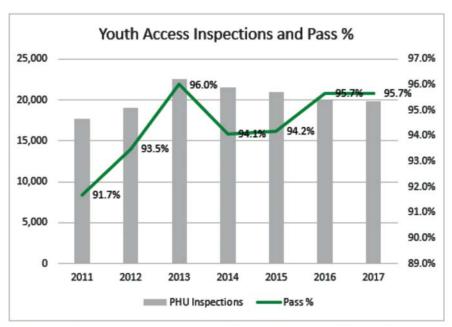
- 04 05 / 회원 연령체크 성실도, 거의 만점!!!
- 06 08 / 비어 / 와인 판매를 향한 열정적 호소
- 09 / 세인트지미 커피 사업 추가 유의사항
- 10 11 / 연방 담뱃세 인상, 무시해도 좋아
- 12 / 임페리얼 Vype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3 / Convenience U 금년 가을에 밴쿠버에서 협회 단체 종합보험 파트너 변경
- 14 / 담배 3사, 흡연 피해자에 170억 불 배상
- 15 / 전자 담배 JUUL, 계약준수 철저히
- 16 / 임페리얼 Vype 광고 동영상 ePEN 소개 금지 조합 건물 600만 달러 수용 채용 공고
- 17 / 독자 투고: LUCKY MAN
- 18 / DORECTORY

정정

기 수령한 OKBA 종합지침서(HANDBOOK) 15면 OKBA골프대회 소개에서 7월 4일(화)의 요일이 잘 못됐기에 '목요일'로 바로잡습니다.

협회 스스로 놀랄 일, 자부심 넘쳐

회원 연령체크 성실도, 거의 만점!!!



In 2017, 19 822 SFOA checks found convenience stores to be 95.7% successful at responsibly retailing age-restricted products

▲ 2018년에 발표한 2017년 자유당 정부 시절의 암행감사 건수는 거의 2만 건으로 이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했다. 그런데 편의점 채널의 연령체크 성실도는 95,7%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협회 회원으로 좁혀서 결과를 분석해 보면 99%로 거의 만 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준법정신을 보이고 있다.

어령제한 품목 판매에 있어 연령 확인 성실도 평가 점수가 협회 회원 들의 경우 99점 전후의 눈부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자료를 조사한 본부 협회 스스로도 놀라며 크게 고무적인 분위기다.

정부의 행정 구역 획정에 따른 광역토론토 기준으로 이 영역 내에 있는 협회 회원의 담배 연령체크 암행 감사(mystery shopping) 결과는 98.8 점 (98.8%)을 기록했다. 또, 외곽의 경우는 정부의 모든 자료를 입수하기 용이치 않으나 회원이 많은 런던 지역을 대표적으로 확인한 결과 99점 (99%)을 넘었다. GTA든 외곽이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연령 확인 성실도 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온주편의점협회(OCSA)가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의 당위성 주장 을 위해 연령확인 성실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매년 LCBO 와 비어스토어(Beer Stores)보다 점수가 높아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나 민간 콘소시엄이 운영하는 소매채널의 연령체크 결과보다 편 의점 채널의 결과가 앞섰다. 이는 작년에 온주 법무부와 보건부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편의점 채널 95.7%)

그런데 이렇게 양호한 편의점 채널의 연령 체크 성실도 중에서도 독립 편의점으로 이루어진 OKBA 회원들의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은 협회와 회 워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좋은 뉴스거리다.



이번에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좀더 자세히 소개한다.

■ GTA회원

*회원업소수는 297개.

*뉴마켓, 필 지구협은 제외함. 정부의 행정 구역에 따른 GTA에는 협회의 이들 두 지역은 포함되지 않음.

*조사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 연도 | 불합격 | 합격률 |
|--------|-----|---------|
| 2015 | 3건 | 98.99 % |
| 2016 | 6건 | 97.99 % |
| 2017 | 4건 | 98.65 % |
| 2018 | 1건 | 99.66 % |
| 4년 연평균 | | 98.82 % |

■ 런던 / 에섹스 지역 회원

*회원 업소 수는 125개

info@1solutions.ca

*정부에서 획정한 구역과 협회의 런던지구협과는 범위가 일치함 *조사 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 연도 | 불합격 | 합격률 |
|--------|-----|----------------------|
| 2013 | 0 | 100.00 % |
| 2014 | 0 | 100.00 % |
| 2015 | 2건 | 98.40 % |
| 2016 | 0 | 100.00 % |
| 2017 | 3건 | 97 _. 60 % |
| 2018 | 0 | 100.00 % |
| 4년 연평균 | | 99.33 % |

이상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데이타는 여러 해에 걸친 정부 암 행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를 실패율로 놓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 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협회는 향후 대정부 협상을 비롯한 대외 적 위상 제고에 요긴하게 활용할 귀중한 자료를 확보한 셈이다. 실제로 3 월 11일 재무부 관계자 면담 시 곧바로 이 자료를 제시하며 주류판매 허 용에 있어서 협회 회원들의 준법정신(compliance)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 조했다.■



비어 / 와인 판매를 향한 열정적 호소

본부협회, 政・官界 고위인사 면담



▲ 본부협회는 퀸즈파크 인근 재무부 건물인 프로스트 빌딩 7층 재무장관 회 의실에서 더그 다우니 의원을 면담하고 주류판매 현대화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고 편의점 업계 영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핵심적인 조언을 상세히 건넸다.

보 부협회 신재균 회장이 편의점 비어/와인 판매 성사를 위해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협회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지난 3월 11일 (월) 오후 2시 30분에 의사당 인근 프로스트 빌딩(Frost Building) 온주 재 무부장관 회의실(7th Floor, 7 Queen's Park Cres E, Toronto)에서 여당인 보수당 더그 다우니 (Doug Downey)의원을 만나 현 정부가 추진 중에 있 는 주류판매 현대화 시스템 수립에 도움이 될 의견 전달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재무부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 자리에는 재무부 담당 국 장을 비롯해 장관 보좌관과 의원 보좌관 등 4명이 의원과 함께 배석했다.

신 회장은 세부 사안에 대한 보고를 위해 전승원 전무를 대동했으며 편 의점 산업 공통 관심사에 더해 순수 독립편의점으로 구성된 협회의 특수 사정을 고려한 일부 차별화 주문을 보태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하 협회 측이 펼친 주장의 다양한 내용들을 사안별로 요점 정리한다.

●준법 실태

연령제한 품목인 복권이나 담배 판매 시, 연령 확인 성실도는 편의점 업 계가 타 업종에 비해 가장 우수하며 편의점 업계 중에서도 협회가 가장 높



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행한 암행감사 결과에서 증명하고 있 다. (관련 기시는 앞의 4,5면 참조) 업소 운영자가 곧 주인이기 때문에 스 스로를 위해서도 연령체크는 가장 성실히 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당 소속 스탠 조(조성훈) 의원과의 지난 2월 15일 노스욕 시민회 관 회의실 면담 때 강조했던 무관용처벌원칙(zero tolerance)을 이 자리 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벌을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각오인데 협회 회원들 의 연령확인 관련 준법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었다.

●교육 훈련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회원 교육홍보 자료 핸드북과 자체 제작한 담배 취급 메뉴얼 'vendor training' 자료를 참고용으로 참석자들에게 건네면서 협회 차원의 회원 홍보와 교육이 주류 판매 시에도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 임을 확언했다. 아울러 온주편의점협회(OCSA)가 전담 교육기관으로 추 진하려고 하는 Smart Age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당부했 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WE EXPECT I.D'를 대신할 업그레이드 버젼으 로 정부의 승인과 재정 지원을 통해 OCSA가 공인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를 원한다. 그런 희망을 OCSA의 입장까지 배려해서 대신 전해준 것이다.

●보안

주류 취급 시 당연히 제기될 종사자의 신변안전과 상품 보안 문제는 담

배처럼 고가 상품을 다량 취급하는 편의점 업주에게는 익숙한 사안이다. 노하우와 요령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역시 운영자가 주인 이 므로 자신의 신변과 상품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된다. 특히 프랜차 이즈나 회사 직영 편의점 체제의 종업원 중심 운영에 비해 월등히 주인 의식이 강한 독립편의점은 이 부분에서 단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헬퍼 또한 프랜차이즈에 비해 교체율이 낮아 숙련도가 높다는 장점이 빛 을 발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런 유리한 여건에 더해 앞으로 편의 점에 주류판매의 문호가 개방된다면 협회는 최고의 보안을 위해 CCTV 를 비롯한 하이테크 기반 설비 강화에 촛점을 맞춰 회원들로 하여금 투자 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격정책

하한가 설정은 정부가 공들여 추진하는 주류판매 민영 확대 정책의 알 파이자 오메가다. 소자영업군에 속하는 편의점이 대형 수퍼 체인과의 가 격 경쟁에서 저들이 물량공세 일명 양떼기를 무기삼아 박리다매로 나오 면 편의점은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기껏 민영 채널 로 확대하는 현대화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제도로 덩치들만 혜택을 보고 편의점은 포기하라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한마디 로 어렵사리 도입한 정책이 용두사미가 된다.

퀘벡도 초기에는 자유경쟁 체제로 내맡겼으나 부작용이 심해 결국 가격 하한선 제도를 도입해 편의점을 보호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함을 역설했다.



Authorized Zippo Dealer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공급채널

정부가 기존 LCBO에 전적으로 도매기능을 맡길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현대화 시스템의 도매부문도 민간 도매상을 보태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 져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경우 협회는 산하에 협 동조합이 있으므로 회원들이 주류 구입까지 하면 원스톱쇼핑에도 큰 도 움이 될수 있음을 설명했다.

●지역특산 맥주

소규모 로컬 맥주(craft beer) 보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 서도 편의점 채널이 이들 맥주 판매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전 국적이거나 세계적 인기 맥주만 취급하는 LCBO나 비어스토어와 달리 편 의점은 지역 동네마다 소재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고급 특화 맥주들이 풍 부하고 다양하다. 이를 소화해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어려운 편의점 영 업환경 타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기타 이슈들

수수료

영업 허가 수수료가 연간 14,000달러로 자유당 시절 허가받아 운영 중 인 수퍼마켓에도 이는 큰 부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편의점에도 주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이 금액은 더 심한 압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퀘 벡(\$168)과 유사한 수준으로 연간 허가 수수료를 200달러 전후로 하면 적 당할 것이다. 온주내 편의점이 약 8,600개이며 업소 당 200달러로 계산하 면 정부는 허가 수수료 명목으로만 1,7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재정 수입 을챙길수 있다.

빈병수거

현행 비어스토어 빈병 수거 시스템에 추가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빈병반납처(bottle depot)를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 다. 여하한 방식으로 가든 편의점에 빈병수거를 의무화한다면 이는 감당 이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원화 방식은 현재 서부 주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 이를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주종(酒種), 규격 및 진열

다우니 의원은 협회측 설명을 열심히 메모하며 중간 중간에 매우 세부 적인사항에 관한 질문도 자주 던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질문 중에 는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시 비어나 와인 이외에 독주(毒酒; hard liquor) 취급도 원하느냐는 것도 있었고 맥주나 와인의 경우 규격 제한에 관한 의 견 그리고 상자 단위의 진열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깨알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포괄적 답변으로 응수했다. 과거 자유당 시절에 술과 관련해 시민을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 취급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율 적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독주 포함 여부, 규격 범위, 그리고 진열 등에 관해서는 업주가 자신의 업소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면 될 일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의원은 종업원 연령 제한에 관한 질문도 했다. 주류 판매 시 이를 취급하는 종업원 최저 연령을 묻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특정 물품과 관 련해 취급자의 최저연령 제한은 없지만 노동법 상 16세 이상만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구입 최저 연령이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술취급 시에도 종업원 연령대를 이 기준으 로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30분 예상의 면담은 모두가 대화에 몰입하다보니 40분을 넘겼다. 충실 한 메모와 적극적인 질문 등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구체적이었으며 유익했음을 상호 확인했다.

다우니 의원은 2018년 6월 총선에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빅 피델리 재 무장관의 의정(議政)담당 보좌 (Parliamentary Assistant to Finance Minister Vic Fedeli)의 중책을 맡은 의원이다. 지역구는 베리 (Barrie-Springwater-Oro-Medonte)이며 정계 진출 전에는 베테랑 변호사였 으며 오릴리아 시의원으로도 6년간 활동했다. 현재 의회 상임위는 재정 경제위 소속이다. ■

KOTRA 신임 관장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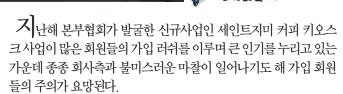


본국의 국영기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토론토 무역관에 금년 1월 새로 부임한 정영화 관장(사진 오른쪽)이 지 난 3월 8일(금) 본부협회를 예방했다. 2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 까이 회장실에서 이루어진 상견례 자리에는 본부 협회 신재균 회장과 신영하 부이사장 겸 협동조합 운영이사장, 심기호 협동 조합 부이사장이 함께 했다. 본국 중견업체들의 제품들 중 협회 회원 업소에서 취급가능한 맞춤형 상품 기획 타진 차원에서 실 무적 주제도 다뤘다. 정 관장은 면담 후 조합 매장을 꼼꼼히 둘 러보는 시간도 가졌으며 신 회장과는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사 업을 발전시켜보기로 했다.

세인트지미 커피 사업

추가 유의사항





이미 여러 차례 사례별로 유념해야 할 정보를 실협뉴스를 통해 주 지시킨 바 있는데 최근 업소를 비한인에게 매각한 회원의 사례가 경 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해 이를 소개한다.

세인트지미 커피 사업을 하던 중에 업소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 약서에 커피 사업을 승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한다. 그냥 구두상으로만 수락을 얻어놓고 정작 법적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매입자가 못받겠다고 하면 항변할 길이 없다. 이 경우 매각한 사람은 세인트 지미측에 적지않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억울해서 매입자 에게 따져봐야 말로만 합의한 사안이라 상대쪽에서 속칭 오리발을 내밀며 "언제 그랬냐, 빨리 키오스크 철수해가라"라고 하면 커피 회 사측과 매도자인 회원간의 법적 분쟁만 남게 된다. 그리고 법적 분쟁 은 해봐야 회원이 패소한다 본부협회에 해결을 하소연해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라서 딱히 처리할 방법도 없다.

이번 회원의 경우는 계약서에 승계 조항은 없었지만 매입자에게 건 네는 부대 장비나 시설 목록에 커피 키오스크를 명시했기 때문에 대 항 근거가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착각이다. 커피 키오스 크는 소유권이 회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 회사측에 있기 때문 이다. 회사 소유물을 매매 계약서에 매도자의 소유권으로 오인하고 명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커피 회사측은 "조만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 임자에게 딱 히 커피 사업을 승계토록 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업소 분위기 개선으 로 권리금을 높이기 위해 커피사업 계약을 하는 가입자들이 종종 있 다"고 한다. 이런 저의를 가지고 커피 사업에 가입하고 나몰라라 하 는 사례를 의식해 회사는 반드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원칙이라 고 설명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업소 매매에 임해야 한다. ■



연방 담뱃세 인상, 무시해도 좋아

카튼 당 53센트, 온주 담뱃세는 동결



▲ 2018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주 및 준주 평균 카튼 당 담배 소매가격, 위 금액에는 세전(稅前 pre-tax)평균출고가 + 연방세 + 주세 + HST(또는 GST) + 소매 마진 평균을 합산한 수치이다.

2019/2020 새 회계연도 연방 담뱃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 '거 의' 라는 표현은 오르기는 올랐으나 '인상 됐다'는 감이 오지 않는다는 말 이다. 일반 담배 기준으로(cigarettes) 5개비 당 연방 세금이 차지하는 몫 은 약 61센트이고 카튼으로 환산하면 (200개비) 24,38달러이다. 이전 회 계연도의 60센트, 23.85달러에 각각 비교해보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인 상폭이다.

최근 수년 동안 연방 담뱃세가 오르면 즉각 동반해서 주정부 역시 최소 2달러 이상 담뱃세를 올렸다. 그리고 나면 연이어 담배 회사들이 덩달아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그러기를 3년 넘게 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고가의 담배 가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온타리오 주편의점 입장에서 담뱃세 스트레스가 올해만큼은 크 게 덜어지게 됐다. 일단 새로 들어선 보수당 정부가 담뱃세 인상 동결을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 양쪽이 담뱃세 인 상을 자제했으니 담배 회사도 이를 빌미로 온주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 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방 담뱃세 인상을 지난 몇년치와 함 께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본다.

〈일반담배 연방세〉

| | 2019/4/1일 부터 | 2018/2/28 -2019/3/31 | 2017/3/23 - 2018/2/27 | 2014/2/12 - 2017/3/22 |
|-------------------|--------------|-------------------------|--------------------------|--------------------------|
| 일반 담배 (5개비 단위) | \$0,60946 | \$0.59634 | \$0.53900 | \$0 _. 52575 |
| 카튼 (200개비) | \$24.38 | \$23.85 | \$21.56 | \$21.03 |
| 카튼 대비 인상폭 | \$0.53 | \$2.29 | \$0.53 | |

표에서 보듯 올해 4월부터 연방 담뱃세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 회계연도 대비카튼 당(200개비) 고작 53센트가 올랐다. 20개비 기준 한 갑 당 5.3센 트 오른 꼴이니 인상을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참고로 시가는 1,000개비 기준으로 연방 담뱃세는 \$26.53이다. 이 또한 전 회계연도 \$25.96 대비 57 센트 올랐으니 인상을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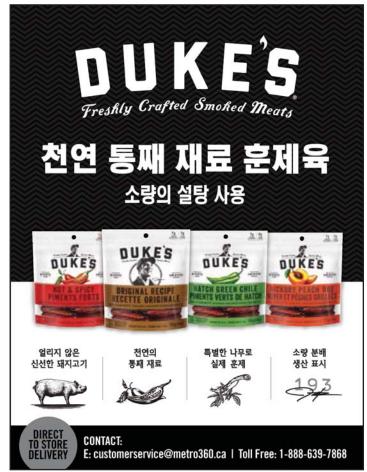
주별 담뱃세 구성 실태를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으로 소개하면 오른쪽 표와 같다. 연방 담뱃세는 공통으로 23.85달러이다. 온타리오는 타 주에 비해 주 담뱃세는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퀘벡 다음이다.

담배에 주정부, 연방정부의 담뱃세, HST(또는 GST)등이 부과되기 전의 세전 평균 출고가(average pre-tax price)는 주별로 어떨지 궁금하겠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높은 가격 순위로 다음과 같다. 유콘(\$47.08), NT(\$45.32), PEI(\$43.27), 매니토바(\$40.89), 사스케츄완 (\$40,48), 알버타(\$39.04), 퀘벡(\$38.12), 누나붓(\$37.08), 노바스코시아 (\$36.31), 온타리오(\$36.11), 뉴펀들랜드(\$35.93), B.C(\$32.15), 뉴브런스 윅(\$28.38)

〈200개비 카튼당 주별 담뱃세, 2018년 3월 기준〉

| 주(준주) | 주(\$) | 연방(\$) | 합계(\$) |
|---------|-------|--------|--------|
| NWT(준주) | 60,80 | | 84,65 |
| 누나붓(준주) | 60,00 | | 83,85 |
| 매니토바 | 59.00 | | 82,85 |
| 노바스코시아 | 55.04 | | 78,89 |
| 사스캐츄완 | 54,00 | | 77,85 |
| 뉴브런스윅 | 51.04 | | 74.89 |
| 알버타 | 50,00 | 23,85 | 73,85 |
| P.E.I | 50.00 | 2005 | 73.85 |
| 유콘(준주) | 50.00 | | 73,85 |
| B.C | 49.40 | | 73,25 |
| 뉴펀들랜드 | 49.00 | | 72,85 |
| 온타리오 | 36,95 | | 60,80 |
| 퀘백 | 29.80 | | 53,65 |

담배라는 제품이 얼마나 세금이 많은지 표를 보면 실감이 온다. 예를 들 어 온타리오를 보면 세금부과 이전의 순수 출고가격이 36.11달러인 것이 각종 세금이 붙고 소매업소 마진까지 붙어 소비자 가격이 109.51달러로 무려 3배나 불어나고 있다. ■





임페리얼 Vype 계약 관련 공지사항

임페리얼 Vype 계약 이외의 다양한 타사 베이프제품 취급 관련해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 난 해 11월 경 대부분 회원들이 임페리얼의 베이프 제품 'Vype'취급 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회원들은 계약서내의 3가지 조건 (Schedule)에서 대체적으로 스케쥴 2번을 선택했으며 이는 일반담배 업 계의 메이저 3사 전자담배 이외에도 타 회사 제품 1종(예: JUUL)에 한해 추가 취급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올해 들어 캐나다 베이프 시장에 커다란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회원들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어왔 던 쥬울(IUUL)이라는 제품이 이곳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전자제품 시장 초창기부터 선두주자로 명성을 떨치던 블루(blu)라는 제 품도 캐나다 시장에 상륙해 시장 확대를 위한 맹렬한 판촉전을 벌이는 형 국입니다

블루는 이미 2월 협동 조합 고객감사의날 행사를 통해 매력적인 할인가 로 많은 회원들이 구입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난 3월 5일과 6일에 개최된 컨비니언스유(Convenience U & CARWACS) 에서도 확인했듯이 앞에 소 개한 베이프 회사 제품 이외에 캐나다 제품인 스틸스(Stith)를 비롯한 많 은 중소 베이프 공급사 브랜드들이 경쟁대열에 가세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도 미래추세를 감안하여 Blu, JUUL은 물론 Stlth를 비롯 한 다른 제품도 취급, 판매하 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원업 소별로 계약을 체결한 임페리얼 브랜드 Vype 제품 외에 도 다른 브랜드 인 쥬울이나 블루 등을 동시에 취급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 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페리얼과의 기존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스케쥴 1으로 계약한 회원들은 메이저 3사 제품 이 외의 타 회사 전자담배 제품은 취급할 수 없고, 대부분의 회원이 체결한 스케쥴 2의 조건은 타 회사 전자담배 제품을 1종에 한해 추가로 취급 가 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케쥴 3로 계약한 회원은 제약조건없이 아무 회사 전자담배 제품을 동 시에 모두 취급 가능하기 때문에 임페리얼사와 계약상의 문제가 없겠지 만, 스케쥴 1이나 2로 계약한 회원이 Vype 제품의 마진 축소를 감수하고 라도 모든 회사 전자담배를 자유롭게 취급하고 싶다면 선택할 길은 스케 쥴 3로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임페리얼과 의 계약기간은 1년이고 원칙적 으로 1년 만료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베이프제품을 취급하기 위해 현재의 조건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를 원한다면 임페리얼 담당 직원과 이 문 제를 분명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행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쥴 1 혹은 2의 경우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미 수령했던 리베이트와 스케쥴 3로 변경하면서 받게 될 리베이트의 차 액을 환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면밀히 따 져보고 임페리얼측과 계약 변경 관련해 신중히 의논해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



Convenience U

금년 가을에 밴쿠버에서



지난 3월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컨비니언스유(Convenience U & CARWACS)행사가 올해부터는 가을에 밴쿠버에서도 한차 례 더 열린다. 개최일은 10월 29일, 30일 양일간이다. (사진은 금년 봄 토론토에서 열린 행사 장면)

협회 단체 종합보험 파트너 변경

ス 난 10여 년간 차량, 주택,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종합 보험 단체 계약 파트너였던 오중찬 중개인과의 계약이 2018년 7월에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는 새 파트너인 Brokerteam Insurance Solution이라는 종합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했 습니다. 비록 작년 7월에 기존 파트너와의 단체 계약 관계는 종 료됐지만 개별적으로는 만료 시점이 상이한 바 이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기존 중개인이 협회의 단체계약 종 료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고 실제 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단체 계약 파트너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중개인과 거래를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회원 들의 자유입니다. 앞으로 본부협회가 체결한 새 보험사와 계약 을 체결코자 하면 이 회사 중개인 박효진(영어명 Roland Park) 씨에게 문의바랍니다. 일부 회원들이 이미 보험을 좋은 조건으 로 신규 계약하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416-985-5287 이메 일 roland.park@brokerteam.ca ■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4월 프로그램

- 일시: 4점 회, 16일 (미) 은 2미기 오관(하시 오후(합시 표 중소: NCWA 노스웨
- 답답: 가장상답원 김진목 (본타 4%-340-1234)
- 표 내용: 1. 치배/증증 질환에 대한 바른 이배
 - 2. 질탕에 따른 대하법, 중상 및 적신호 파악하기
 - 3 간탈인의 같임, 걸서, 전체적 스트레스의 어때
 - 4. 긴행인의 누탁파로 여당을 위한 Wellness Recovery Action Plan

- 일4: 4명 15일(점) 모전10시30분 모후12시 강소: NCWA 노스욱
- 당당: 정착상당원 강영육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온테리오 전기로 보호 프로그램이라? 2. 부산세 인상 취소 프로그램이란? 선명지리의 신원점에

- 를 열시:4월 11.18일 (목) 축 2학기 오후6시 오후8시 22시 보안하다
- 장소: KCWA 노스타 당단: 경역상당원 박인희 (문화,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엔리와 확임

 - 2. 캐나다의 이씨, 근현대사 3. 캐나다의 리부, 사업시스템
 - 4. 캐나디의 상징, 경제, 피레
 - **英型研查**科

- 덜샤 4월 15달(등) 오후6시 오후8시 끝소: KCWA 노스욕
- 당당: 등착상당원 최상배(문학: 495-348-1234)
- 내용: 1, 로본로 대중교통위원하(TTC) 소개 2. TTC내 다양한 부서 소개
 - 3. 자리 조건 및 지원 절차 4. 절의 용답

필수나 4월 23일 (월) 보선 99시 - 모후3시
 ■ 장소 HOWA 다운타운

를 열시·4월 16일 (한) 우후6시 _ 우후6시 를 잡소: KCMA 노스트

■ 내용: 1.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규정

■ 답당: 결작상당원 경호원 (윤약: 416-340-1234)

2. 영주권위도 신청 및 경신 단내 1. 준비서류와 진행

4. 신청사 작성의 실제 5. 사례 나누가 및 질문과 답변

图念: KCWA 上点导

- 당당: 정착상당원 주향숙 (문화: 416-348-1234)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2. 광영검사

- 열시: 4분 26일 (급) 무관(6시 무후(2시 장소: KCRA 노스목
- 당당: 정착성당은 박인희 (분야: 416-340-1234)
- 내용: 1. Presto 키드 구매 및 충진방법
 - 2. Presto 개도 TAP하는 법법 1. 온라인 My Presto 계정 등록

 - 4. 문습 정보 5. 아이, 어른, 시니어 오금제

OSAP 정보 새미나

- 출시: 4월 30일 (매) 모두6시 모두8시
 조소: KCWA 노스템
- 함당: 결착성당은 이성경 (문학: 416-349-1234)
- 내용: 1.06AP 이연? 2.08AP자리 조건
 - 1. OSAP 설정시기 및 방법
 - 4. OGAF HI 1919













2012년 시작된 송사, 이제 항소 판결나와

담배 3사, 흡연 피해자에 170억 불 배상

국내 메이저 담배 3사에게 천문학적 배상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 일 퀘벡 항소심 법원은 원고측인 퀘벡주에 거주하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환자 흡연자들에게 피고인 담배 회사가 원심대로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국내 담배시장을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3개 회사인 임페리얼 토바 코, JTI, RBH는 "이득에 눈이 멀어 고객의 건강을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던 것인데 항소법원 이 다시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원심판결이 있던 지난 2015년 5월로 돌아간다. 퀘벡주의 흡연으 로 인한 질병 환자 90여 만명이 이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 송에 대해 총 156억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었다. 그리고 1차 배상금 11 억 3천만 달러를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원고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담배 회사들은 "담배는 연방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상품으 로 은폐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차 배상금 지급 시한 직전에 항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피고측은 항소를 제기하며 "1차 배상금 11억3천만달러를 마련할 방도 가 없다'며 결국 회사 문을 닫으라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 며 "지금도 매일 수많은 주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때문에 숨져가고 있 다"고주장했다.

이 집단소송은 90여만명이 원고측으로 가담했으며 임페리얼은 배상금

의 67%를 1백5억달러, RBH와 JTI 는 각각 31억달러와 20억달러 배상을 명령받았었다.

집단소송의 발단으로 이야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때는 2012년. 퀘 벡의 리즈블레씨는 2012년 남편 장이브블레씨와 사별했다. 당시 68세의 남편은 간암으로 사망했다. 부인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했을 때의 초창기 원고 중 한명이다. "법정에서 담배회사들은 사망의 원 인은 흡연자의 잘못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한다. 회사들은 흡연자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 면 남편은 195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당시 사람들 은 흡연의 건강상 유해성을 몰랐다. 이후 그는 세차례나 금연을 시도했지 만 끝내 끊을 수 없었다.

3월 1일 항소 판결 소식을 접하자마자 리즈블레씨는 "담배 회사들은 거 짓말장이"라고 일갈하며 판결을 하나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하지만 희생 자들을 위한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갈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도 비쳤다.

원고측 변호사 필립 트뤼델씨도 기뻐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배상금은 1심때의 156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170억 달러 이상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퀘벡 최고법원에서 열린 2심인 항소심은 2016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지난 3월 1일 판결이 나온 것인데 피고측 주 장의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의 재 판부는 흡연의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 았음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들의 마켓팅이 흡연자들로 하여금 중독의 위험성 이나 치명적 질병으로 이끌어 왔음을 피고측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이같은 마켓팅을 통해 피고들은 위법적이고 고 의적으로 신성불가침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총 422 쪽의 판결문 결론은 한마디로 "원심의 아주 사소한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심 판결을 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피고측 반응

이번 항소 판결에 대해 피고측인 담배회사들도 반응이 나왔다. 먼저 RBH를 보면 최종심인 연방 대법원에 상고(上告)할 계획이다. RBH법률 대리인 피터 루옹고씨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원고측 그 누구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피해 배상을 허용 케 하는 판결로 집단소송법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고 비판했다.

임페리얼 대변인 에릭 가뇽씨는 "전례가 없는 법의 원칙을 흔들고 있어 재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으로 믿는다."고 말 하며 이번 판결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임페리얼측은 "흡연자들이 성인 으로 수십년간 흡연과 관련한 위험을 인식해왔고 연방도 담배 장사하라 고 라이센스를 정당하게 발급해준 것"이라며 "제반 법령을 모두 준수해 왔다"고 강조했다.

JII역시 유사한 논조로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판결을 근본적으로 동의 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

위반 시 해당업소 보건당국에 신고까지

전자 담배 JUUL, 계약준수 철저히



▲ 본체(device)와 카트리지(pod)를 손님에게 회사가 정한 최대 허용량을 초과해 판매하다 가 적발되면 회사측은 공급 중단 조치에 요주의 업주로 자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물 론 정부당국에 신고까지 한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도 마찬가지 조치를 당한다.

전자 담배 업계에서 초절정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쥬울(JUUL)이 자 사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소를 상대로 초강력 불관용 규제 조치에 들 어갔다.

규제는 두가지로 집약되는데 첫째는 미성년자에게 판매(age restriction)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25세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 구하지 않는 사례도 포함해서) 구매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잠정 요주의 관리 대장에 올라 특별 관리 업소가 된다. 더 나아가 반복해 서 적발되면 지자체를 비롯해 보건당 국에 신고까지 할 것이며 쥬울 취급 을 영구적으로 봉쇄시키겠다고 한다.

두번째는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초과(bulk purchase) 한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허용량은 〈본체(device) 2 개 + 카트리지(pod) 5개〉 또는 〈카트리지만 구입할 경우 20개 〉까지인 데 이 제한 물량을 초과해서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의 제재 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두가지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사 자 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정부 암행감사(mystery shopping)를 회사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통제 손길이 미치 기도 전에 회사가 알아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미성년자 이용 증대로 사회 문제가 되 며 회사에 대한 비난과 압력 수위가 거세지 자 이제 갓 진출한 캐나다 시장에 불똥이 번질까 우려감이 증폭됐기 때 문이다.

회사측은 미국에서 전자담배 시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명성에 걸맞게 이미 미성년자 판매 금지에 대한 계몽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신뢰 구축에 신경을 써왔으며 이 이슈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캐나다 시장에 상륙한지 얼마 안된 시점인데도 위 두가지를 위반하는 비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고 있어 더 확대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다.

손님을 가장한 쇼핑 행위는 3월 25일부터 시작됐다. 회원들의 각별한 주 의가 요망된다. ■

이 페리얼 베이프 제품 홍보를 위해 회사측이 제공한 스크린 상 에 과거 문제 소지가 있어 사용 하지 않는 버젼의 동영상 광고물 ePEN3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것 과 관련해 회사측은 이 시리즈물 을 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긴

현재 ePOD로 업데이트 중

임페리얼 Vype 광고 동영상 ePEN 소개 금지

그레이드 버젼인 ePOD가 소개되 고 있는 중이다. 다만 수많은 소매 업소를 새 버젼으로 교체하는 작 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앞으로 도 수주가 걸릴 이 작업이 진행되 는 동안 구 버젼인 ePEN이 나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진화에 나선







급한 요청을 해왔다. (3종의 사진은 동영상 ePEN광고물 캡쳐 사진들 임) 현재 이 홍보 동영상은 회사측에서는 폐기시킨 상태이고 대신 업 것이다. 회사측은 새 버젼으로 교체되지 않고 계속 구 버젼이 나오는 업소는 당분간 기기를 꺼놓으라고 당부한다. ■

운영이사회 압도적 찬성 조합 건물 600만 달러 수용

소합이 웨스트몰 소유 건물을 협회가 제안한 가격 600만 달러 그대로 받아들여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22일(금) 월례 운영이사회에서 이사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안건으 로 다룬 협회의 조합 건물 인수에 관한 토의에서 협회측 요구를 조건없이 받기로 결의했다. (거수표결에서 7:1 찬성) 2명의 감사 는 옵서버 자격이므로 의결권이 없다.

협회가 산정한 600만 달러의 근거는 지난 1년 간 두차례 공인 기 관에서 감정한 시가에서 약 40~45만 불 정도의 개 보수 비용(지 붕, 주차장 등)을 제한 가격이었다. 이 오퍼 가격은 지난 3월 7일 열린 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한 바 있다. 이때 많은 논의를 거 친 끝에 대략 이 가격 전후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을 하며 집행부 에 위임을 했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매도자인 조합측이 운 영이사회를 통해 적정한지 여부를 논의했던 것이다.

논의의 출발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시가에서 공제되는 공사비 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견적서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건 부승인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645만 달러를 받고 수십만 달 러에 달하는 공사를 철저히 해서 넘기는 것이나 600만 달러받고 매각 후 새 주인이 된 협회가 같은 금액을 투입해 알아서 수리하 는 것의 차이점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조건없 는 600만 달러를 수락한 것이다. 이제 양측 리더들은 자문 변호사 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만 남기게 됐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OKBA)에서 아래와 같이 인재를 구합니다.

1. 채용직책: 대외협력팀장 1명

2. 보수조건: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

3. 주요 담당업무

- 공급사 / 제휴사와의 협상
- 정부 및 유관 기관 접촉
- 회원 고충 상담

4. 자격요건

-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영어권 국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비즈니스 관련 학과 우대)
- 영어와 한국어 원어민 수준의 구사자
- 도매업계 유경험자 우대

5. 제출서류

- 영문 이력서, 자기 소개서
- 최종 학력 증명서류

6. 지원 방법

accounting@okba.net

7.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채용 취소
- 서류 검토와 면접 후 최종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온타리오하인실업인협회

- 김윤배 회원 -

IIICKY MAN



□ 시사가에서 컨비니언스를 운영했을때의 이야기다. 그가게는 아파 트와 콘도들이 밀집하여 있는 동네에 위치해 다른 가게들보다 그로서리 가 좀더 많이 나가는 편이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씩 들어 오는 개별 손 님보다는 주로가족단위로 함께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그 손님들 중 에 Bob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가게에 와서 주로 네바다(*즉 석복권의 일종)를 많이 하셨다.

가게 운영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분의 부인부터 손주들 에 이르기까지 온가족이 모두 우리 가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들을 VIP로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하였다. 그래서 그 분에 게 네바다를 판매할 때에도 큰 액수가 남아있지 않은 올드 파일에서는 꺼 내 주지 않고 뉴 파일에서만 판매했다. 그리고 올드 파일이라고 하더라 도 큰 액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주지 않고 한쪽에 모아 두 었다가 밥 할아버지 한테만 판매하였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큰 액 수가 당첨될 확률이 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Bob은 네바다를 하면 항상 큰 금액에 당첨되는 럭키 맨이라고 불렀다. 그분은 그렇게 3~4년정도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하늘의 부르심 을 받고 떠나 가셨다. 내가 손님들 중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유일하 게 그 분인 듯하다.

럭키맨인 밥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특별 한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가게 하나를 운영한다는 그 이 유 하나만으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럭키맨으로 만들고 비록 적은 금 액이지만 돈도 잃지 않고 조금은 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전 지 전능하고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느님께서야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 이든 못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수십 만명의 사람들을 고용하 고 큰 기업체를 수십 개나 운영하는 큰 그룹의 총수들을 떠올린다. 그들 은 분명 향후 벌어질 일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천력을 가진 능력있는 사람들 이다. 그리고 아마 운칠기삼이라는 큰 행운이 작용한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게다.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그 능력도 그 행운도 모두 다 주신 것이 아닐 까?아마도 그럴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와 명예를 모두 주 셨을까? 그건 내가 내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대하듯이, 이 세상을 꾸려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택 하여 능력을 부여하고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하느님께서 원하는 이 세 상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신 특명이 아 니었을까 추측해본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그 크나큰 뜻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마는 내 생각이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못 미치는 것이 나 의 한계인 것을 또 어찌하라. 다만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때 사고 와 의지, 선택등 모든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고 무 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몫이었기에 하 느님의 뜻에 반하여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여본다.

그렇다면 나도 이 나이에 하느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하느님께 서나를 귀히 여겨 내게도특별 대우를 해 주실까? 그것이 돈이 될수도 있 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가족들의 화목함이나 지칠줄 모르는 일에 대 한 열정 등 소위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하고 어리석은 바람도 가져본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가치 를 지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그런 소명을 주셨을 게다.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 해본다. 그렇다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우리 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보자. 아마도 그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사회 그 리고 나라로 뻗어 나가는 것일게다. 비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 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며 그 일에 동참하였다는 뿌듯함과 기쁜 마음은 나를 행복의 품안으로 이끌어 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줄 것이 리라 확신한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My Way)를 들으며 나의 길 을 다시 점검해 본다.

2019년 2월 18일 가정의날(Family Day)에

DIRECTORY

| ■ KBA 협동조합 | ■ 갑기 |
|---------------------------------------------|--------------------------------------------|
| 169 The West Mall, Etobicoke | Metro 360 (416) 285-2050 |
| (협동조합 사무실) (416) 789-7544 | News Group (905) 681-1113 |
|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
|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 법률관련 |
| |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
| ■복권관련 | Best Defence (아담 유) (416) 739-8887 |
| AGCO (복권 판매 라이센스 관련)(416) 326-8700 | |
| (800) 522-2876 |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
| Fax (416) 326-5555 | Bank of Canada(위조지페 관련문의) - (888) 513-8212 |
| OLG(800) 387-0104 | 신한은행(416) 250-3550 |
| -03 | 외환은행(416) 222-5200 |
| ■음료 (202) 244 2552 |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
| Coca Cola Bottling Company (800) 241-2653 |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 ■ 어르!! |
| (800) 387-8400 | ■ <mark>언론사</mark> |
| Saint Jimmy's Coffee Service (416) 250-9427 |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
| ■우유 | Globe and Mail (800) 387-5400 |
| SAPUTO(Neilson Dairy) (800) 663-4724 | National Post (416) 383-2500 |
| 3AF010(NellS011 Dally) (800) 603-4724 | Toronto Star (416) 367-4500 |
| ■ <mark>스넥</mark> | Toronto Sun (800) 668-0786 |
|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 (800) 008 0780 |
| South Cove (905) 829-3666 | ■ 장비 설치 수리 |
| Conagra Brands Canada (416) 679-4200 |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
| Conlagra Branas Canada (410) 073 4200 |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
| ■ 샌드위치 | Cool Air Cleaning (416) 224-0020 |
| Classic group of companies (866) 760-1926 | Hi Cool Tech (416) 909-7114 |
|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866) 760-1926 | (1.6, 363 7.1.) |
| (***, *** |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
| ■ Meat Jerky | Adapt Media (416) 856-4466 |
| Great Canadian Meat (905) 666-9395 | |
| Conagra | ■기타 |
| | Kocom (416) 769-3532 |
| ■ 쵸코렛 / 캔디 | DSC Digital System (416) 255-6549 |
|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 David Health International (647) 726-1010 |
| Mars Canada Inc (800) 565-0147 | 허바헬스 (416) 435-5754 |
| Hershey Canada Inc (800) 268-1304 | 365 Wholesale (416) 931-9002 |
| Mondelez(Cadbury/Christie) (855) 535-5648 | Butterfly Fashion (416) 785-5999 |
| Wrigley Canada (416) 442-3298 |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
| | 원도매상 (416) 661-6664 |
| ■ 아이스크림 | DavidWholeSale (416) 419-3751 |
|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 78 Trading (437) 777-7878 |
| Optorio (200) E00-E634 | Yeno Trading (647) 967-6561 |
| Ontario (800) 500-5634 | |
| |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
| ■ ATM / Debit Touch Cash (866) 391-3950 |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



Moneris Solutions - - - - - 1 - (877) 789-5335 1Solution - - - - - - - - - - - - - - - - (888) 554-7355









Doritos XL 2/\$750



Take Home

Cheetos XL 2/\$750

Single Serve



Lay's & Cheetos 2/\$3









Display Drive

Area Spitz Deal buy 5 cases save \$2

2019.3.31~4.27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3월 31일부터 2019년 4월 27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 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









869.57.49 Spe.56.49 1.2kg All Flavours Vidal Candy

AIDVE

98.212.9q2 98.012.p9A 67.12.992 99.12.psA Maynards 170 - 185g All Flavours **Z**ələpuoW

Reg.\$3.25 Spe.\$2.99 Oreo Thins 170g All Flavours Maynards Singles 18/44-64g All Flavours





68.02.9q2 64.12.p9A p424



Brand Strategy

Clif

Popcorners 1429 All Flavours Reg. 7, 299 eg. 1, 299 Cretors 184 - 2279 All Flavours Reg.\$2.79 Spe.\$2.59



McCormicks Real Choc. Baby Bottle Gummy Blast Reg.\$14.49 Spe.\$12.99 Double Bubble Tub Reg.\$15.69 Spe.\$13.79 Regal



Blue Diamond Almond Milk 946ml All Flavours Reg.\$2.25 Spe.\$1.99





99.812.99 Spe.\$18.99

Sugar 10/2kg



99.12.99 Spe.51.99



Peg.\$13.19 Spe.\$17.49

CHEERS)

Wrapped Marshmallow Brooms

Franco American Gravy 284ml All Flavours Reg.\$1.19 Spe.\$0.95 Chili 425g All Flavours Reg.\$2.55 Spe.\$2.29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2.99 Spe.\$2.25 24. F2.9q2 60. F2. g9A should like Soup Spirity & b9A



Clif Whey Bars 58g All Flavours Reg.7.05 Spe.\$5.59

Clif Builders 68g All Flavours Reg. 16.69 Spe. \$15.19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 14.39 Spe. \$12.89



8eg.53.29 Spe.51.99 Honey Nut Cheerios 330g **General Mills**



BIGS Sunflower Seeds 1409 All Flavours Reg.51.35 VH Sauces 347 ml Flavours Reg.\$2.79 Spe.\$3.35 Par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2.02 Spe.\$7.19



Bueno Minis 118 Bag 979 Reg.52.35.35 Watermelon Lime Reg.57,79



SP BRUNSWICK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ZA. F. 20. F. 20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7.35 Spe.\$1.19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Clover Leaf

66.12.9q2 91.22.29A sbriX IIA p241 snuT nñwolleY thgil muimer9

Dare 52

Reg.\$2.79 Spe.\$2.35 Ultimate Cookies 290-300gg All Flavours 22.12.9q2 27.12.psA Breaktime 325g All Flavours



Beans 398ml All Flavours Reg.\$1.79 Spe.\$1.09

검면 広양탕 'JAWTI'

실익 차원에서 '도매상의 도매상 가입 타진



Dr, Brampton, ON) ▼ 22다 영유피ㅌ히 대꾸고 몸쁩 기지를 가지고 ,묻힘 도매유이 도매유,이타 ຄ휠어지는 잇월(ILMAL), 본사와 몸류 센터가 함께 있다. (440 Railside

5세 개도 온에 있다. 하며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실리와 중·장기적 관점의 득실을 터 고네듀드 과데화 돌옥이 눅트 톰뫂과 가널 데이터를 코코의 골수 에 참석했다. 면담 주 조합측은 중분한 시간을 가지고 잇월측으로부 비스/물품조달이사등 5명이며이달 아사장을 계의하고 4명이 회합 고위 핵심인사는 이사장, 회장/CEO, 무회장, 자업개발이사, 푸드서 동치를타고구석구석 안내를하며 둘러볼 기회도 가졌다. 잇월의 최 회를 진쇄했다. 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는 25만정 매상을 전화 전 라고위관계자들이 거의 모는 면담에 참석해 상당히 공을 들어 걸명 진했다. 잇월측은 협회와 조합의 관계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던 터 기호 부시사자과 협회 및 조합 겸임 전승원 전무인 사무관에 가입을 타 스로 가입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2일(화) 비로소 조합 심 조합은 오래전부터 잇월 가입 기회가 있었으나 여러 복합적인 사정



DCI 접촉,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da Inc. 빌링턴소제)를방문했다. 심기 holder) 2 'DCI' (Distribution Cana-일에는 조합이 이미 투자 회원 (share-있월 접촉이 있은 일주일 주인 3월 19

될 방안 모색의 또다른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를 찾은 것인데 이곳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합 운영에 도움이 축이 단칠됐던 상황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신입 전무 소개 겸 DCI 중 I어저지보1 코IP상 따부 무达 얍조 글무坯 용송坯 Æ장시아부 호

시 이날 접촉한 것이다. ■ 미야화 좌세를 방고하는 정도라 이를 다기 출생화/131가는 뉰고에 기에는 훌륭한 관계를 울에 상호 원원이 웨어이 겠으나 현재는 매는 장초후일자. 귀야돗물 멀쥬유비 빠뜨 무얼의 추소 독혈을 大다 ing group for "Independent Canadian Grocers") 호로 이례하면 된다. 상고로 DCI는 1981년에 발속된 독립 식품도매상 마잉 그룹(a buy-

> 수소비지들에게까지 물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토 수를 시품진, 요식업소등은 물론이고 1중 7만/단체들과 최 독립도매상들이다. 그리고 이 전국적인 규모의 잇월은 전의점, 약국, 다. 사리 회원들은 다양한 소매업과 푸드서 비스에 돌꿈을 공급하는 성품 도매상들까리 뒿등 모으거는 뉙乂에서 1966년에 흉숙화 단체 식품+운경이 내용 식뫂 케이가에 이왜 기메 라는 나조를 쌔고 눈녘 다. 공식명정은 'ITWAL Limited''인데 보통 간단히 잇월로 통한다. (LLANVI)이라는 외국 타비히 기뫂 正매방울 네ㅌ비크가 항

> 국, 개스채인 등 매우 다양한 소매업소로 구성되어있다. 품을 판매하는 네트워크로 자리잡았고, 편의점은 물론 식당, 기관, 약 효율적 경쟁력을 자랑한다. 현재 잇월은 24,000개의 소매업소에 물 있다. 라강한 바잉과위를 마탕으로 고객 혜택 수선주의를 앞세우며 시골 마켓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실굇줄처럼 네트웍을 형성하고 아에서 뿌죄튿돼근히 세히듵돛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곤취외에서 커버할 수 있는 100여개 이상의 도매상들을 거느리며 B.C주 빅토리 몇몇독립도매상들이 모여 시작됐으나 50억 년이 지난 현재 진국을 상월이 지난 1966년 발족할 당시는 남부 온타리오에 소개하는 불과

> 수 브램트에 25만 정방피트 규모의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증가족이 많은 제품류는 스백과 음료수 제품들이다. 잇월은 온 500명을 넘어진다. 공급 품목 제품 믹스는 광범위하다. 지난 몇 년간 리 게품들이 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잇월의 영업사원은 사코드 드디드 큐뚜딩 뜨품K받스 종각 글KB, UNX였루 10 을추주 깃월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품들은 초기에는 담배와 당과류가

> 광자격회원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한다. 된다. (shareholder) 현재 78개의 투자 회원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쇼 쇼핑할 자격을 부여받는 회원이다. 이후 투자까지 하면 주주 회원이 회원가입자격은 처음에는 일단구매권리 회원이 돼야 한다. 이는



\\$6-7544) (사진은 증서 견본임)■ 조합사무실에 연락해 확인토록 한다. (紅6-지 않으면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는 개최성으로 타게 된다. 3월 안에 온도하 오늘하며 늦어도 3월 중에는 이들 996명 모 함에 현재 총 조합원은 996명이다. 우편 발 두주식 증서를 받게 됐다. 기존 조합원을 포 둘 개줄이 늦는가 된 회원들도 예정함이 포 욱 드메ン 마纫에 즁프레 기둥 고립되는 톰 그를 생동 내성에 마든 百울는 음식 튜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 이사광 : 신영하 (Youngha Shin)

이만석 (Man Suk Lee) (ee) (Doo-Seung Lee) (nud2 nuy2 est) 표K나 응명절 (Myeonghyeon Song) ■ K.B.A. 운영이사 (가나다 순)

허상훈 (Chang-Hoon Huh)

상해민 (Hae Min Jang) 백사열 (Sah-Yeal Paik)

■ K.B.A. 감사 (가나다 순)

■ K.B.A. 충발부상: 권력성 (Hyuk Sun Kwon)

실무사 협조공합 .A.8.X ■ ■ K.B.A. 사무상 : 배 출리아 (Julia Bae)

Flo2 - 687 (214) x67 751 (416) 789 - 7544

741 (416) 867 - 1444 ● K.B.A. 협동조합 매장





Sincere Trading of KBA News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제4호



송발 사증 나주 햡조 남면 소영진 4월 스페셜 K.B.A. 협동조합 4월 스페셜

